

## 제주 인구소멸 심화... 지원서도 확대

제주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 편입 예상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제주는 지원대상서 배제 제주·서귀포 인구감소·관심지역 미포함 지원 제외

제주자치도가 오는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인구소멸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 및 인구소멸 지수 전망'에 따르면 2020~2024년 제주지역 총인구는 연 평균 0.8% 증가해 2040년 기준 약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인구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래인구 증가율 분석 결과 2020~2030년 연평균 1.2%에서 2030~2040년 연 평균 0.5% 증가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경우 전체 생산가능인구 대비 감소세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제주지역 인구소멸지수를 예측한 결과 2030년을 전후해 인구소멸위험이 0.5미만으로 감소해 인구소멸위험 진입(0.2~0.5)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제주지역은 2040년 이후 인구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될 우려가 높게 분석됐다.

제주지역 인구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대상은 기초자치체이며 광역자치체에서 2~3개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고, 신청사업 중 도별로 1개 사업씩(총 7건)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결정에서도 확대를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매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관심지역(18 시·군·구)에도 포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에 포함돼 2022년 14억원, 2023년 19억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서귀포시는 법인격과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주체에서 제



설국(雪國)으로 변한 1100도로 기온이 뚝 떨어진 19일 1100도로 휴게소 인근 숲에 상고대가 피어났다.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가는 겨울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외됐다. 기부금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제주·서귀포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림에 떡'에 그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 제주자치도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24일~내달 3일 개최 '전기자전거 조례' 등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4일부터 첫 회기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회기인 제413회 임시회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개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 받게 되며,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발의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 올해 의회 운영 기본 일정 중 연간회기 일수는 총 9회 125일로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7회에 86일로 운영된다.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회에 걸쳐 4월 제414회 임시회와 9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2회에 걸쳐 5월 제415회 임시회와 12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4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제41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이태로그 기자

## 소나무 고사 원인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제주시, 한경면·한림읍 일대 1000ha 해송림 대상

속보=제주시는 한경면 일대 소나무를 집단으로 말라 죽게 한 솔껍질깍지벌레(본보 1월27일자 1면·2월10일자 1면 각각 보도)에 대한 방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한경면을 포함해 유사한 피해 양상이 나타나는 한림읍 일대 1000ha 해송림을 대상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한편, 약제를 이용한 방제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한다. 또 올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예방을 위해 나무주사를 주입하기로 했다. 이번 방제는 한경면 낙천·조소리 2개 마을에서 소나무

에 의한 피해로 결론됐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재선충과 함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3대 산림 병해충이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알에서 부화해 약충-정착약충-후약충-전성충-고치-성충 순으로 성장하는데, 이중 알이 보이지 않고 둥근 점 형태의 후약충이 소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 소나무 수액을 빨아 먹으며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식이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지난 2014년 추자도에서 처음 발견돼 이 지역 해송림을 초토화 시킨 뒤 2018년 제주 본섬까지 침투했지만 고사 규모는 이후 매해 수백 그루에 그쳤다. 따라서 본섬 내 단일 지역에서 수천 그루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기자

버스 준공영제 용역 설명회 '썰렁'... 3면 / 항공요금 폭등... 5면

## 육지와 제주의 배송비는 똑같이!

‘제주도’로 주문할 때는

추가배송비 부담없는
해남미소

에서